

kotra NEWS 1월

발행일 : 2025년 12월 30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미국 통상정책 주요 동향 관련 해외시장뉴스	19
팀코리아협의체 동정 VINAMAC EXPO 2025	22
기업탐방 퍼시스 이능기 팀장	24
법률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의 고충 전현우 변호사	28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2탄 엄진용 회계사	30
통관 베트남, 희토류 수출 금지 개정법 채택 이여람 관세사	32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후예시	34
이달의 보고서 2024/2025 KOT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ES 2026 미리보기 : What to see @ CES 2026	44
이달의 전시회 호치민 국제 의류, 섬유 및 섬유 기술 무역 전시회	45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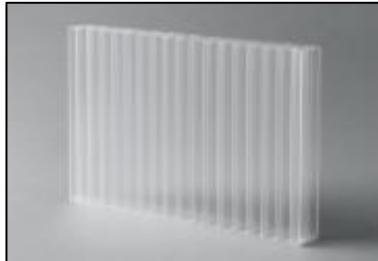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KOTRA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hanjisoo@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

문의처



베트남 폴리카보네이트 시장동향

- 베트남 제조·건설 투자 확대로 고기능성 수요 증가 전망
- 수입 의존 심화와 중국산 비중 확대 추세

상품명 및 HS코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는 HS코드 3907.40에 속하는 품목이다. 이는 투명성, 절연성, 내충격성, 그리고 가공성이 우수한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해당 물질은 주로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헤드램프 및 내장재, 그리고 건축용 채광판 및 지붕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시장동향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베트남의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5년에 118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8.4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30년에는 1775만 톤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생산기지 이전 추세,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원부자재 조달 확대 움직임, 그리고 국가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플라스틱 전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전자, 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고기능성 수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플라스틱협회(VPA)의 2024년 발표 기준에 따르면, 베트남 내 약 4000여 개의 플라스틱 관련 업체가 활동 중이며, 이 중 약 83%의 기업이 남부 지역에, 15.2%가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남부 지역은 가공 및 압출 업체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폴리카보네이트 수요가 높으며, 북부 지역은 전자 및 전기 부품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어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베트남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등의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입 동향

2024년 베트남의 폴리카보네이트(HS코드 3907.40) 수입 규모는 약 6억8159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3% 감소한 수치이다. 2023년에는 글로벌 플라스틱 수지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입 증가가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재고 조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최대 수입 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억1690만 달러로 전체 수입 비중의 46.2%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69.1%라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과거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국, 일본, 태국 등 전통적인 수입 대상국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가격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의 시장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023년에 5억6059만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2024년에는 4977만 달러로 급감하여, 2023년의 증가는 특정 프로젝트의 일시적 수요 집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2024년 기준 베트남의 2위 수입 대상국으로서 1억262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 수요 확대 등에 따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 동향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공급 분야에서는 롯데, LG, 태국 Bayer, 사우디아라비아 SABIC, 일본 미츠비시 등 글로벌 화학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공 분야에서는 Vinahome, IMPACK Vietnam, Nam Viet Plastic 등 현지 업체들이 단판, 복층판, 고내충격 시트 등 건축용 및 산업용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며 경쟁하고 있다.

유통 구조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유통은 대부분 해외 생산 후 베트남 북부 하이퐁 등 주요 항만으로 반입되는 형태를 따른다. 이후 현지 수입업체 또는 글로벌 화학기업의 베트남 법인을 통하여 베트남 내 가공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관세율 및 인증

2025년 기준으로 폴리카보네이트(HS코드 3907.40)는 베트남이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EVFTA의 경우 기본 관세가 0%이며, 한-베 FTA 및 RCEP 등에서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관세총국 자료에 따르면, 일반 관세율은 5%이나, AKFTA, VKFTA, RCEP 협정 관세율은 모두 0%로 책정되어 있다. 폴리카보네이트 원료 자체의 수입은 일반 공업용 원재료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C/O), 포장명세서, MSDS 등 기본 통관 서류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폴리카보네이트를 활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자재(예: 채광판, 지붕재)의 경우에는 베트남 국가기술규준(QCVN) 및 소방·안전 기준에 따라 난연성 및 기계적 강도 등의 추가 시험성적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격별로 인증 필요성이 달라진다.

시사점

베트남 폴리카보네이트 시장은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국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확대, 건축 및 물류센터, 산업 단지 수요 증가 등의 중장기적인 요인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의 생산 확대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수요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 구조는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고기능성 및 고내구성 등급의 수지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산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베트남에서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난연, 저연, 생분해 기반 폴리카보네이트 등 지속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은 중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현지 가공업체들은 프로젝트 기반의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므로, 안정적인 공급 능력, 기술 지원, 그리고 현지 대응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성 판재, 광학용 커버 등 고부가 제품 시장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고도화와 함께 성장하는 베트남 로봇 및 자동화 산업

- 베트남 제조업 자동화 수요 확대,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단계별로봇 도입 움직임 노력
- 글로벌 기업 중심에서 중소 제조업으로 확산 가능성, 한국 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

베트남 로봇 및 자동화 산업 시장 규모

베트남 제조업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생산 효율성 제고, 품질 안정화, 숙련 인력 부족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MARC에 따르면, 베트남 로봇 및 자동화 산업은 하드웨어(산업용 로봇, PLC), 제어시스템, IoT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구조이며, 특히 전기·전자 등 수출 주도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3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6670만 달러 규모까지 일시적으로 급락했으나, 2021년 약 2억7460만 달러, 2022년 약 2억7110만 달러로 코로나 이전의 확장 흐름을 유지했다. 2024년에는 약 2억3060만 달러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약 2억3930만 달러에서 2억 7390만 달러 수준의 점진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이러한 회복 흐름은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자동화 수요 확대와 글로벌 투자기업의 자동화 설비 확장이 시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구조로, 2024년 기준 이 분야의 로봇 시장 규모는 약 1억6717만 달러를 기록하여 삼성전자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 및 자동화 수준 고도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산업별로 로봇 시장 비중은 전기·전자 산업이 약 72.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식품(약 4.2%), 금속(약 3.4%), 화학(약 3.5%), 자동차(약 2.6%), 기타 산업(약 13.8%)으로 구성되어, 전기·전자 중심의 대규모 자동화 투자와 비(非)전자 제조업의 점진적 자동화 확대가 병행되는 시장 구조로 분석된다.

베트남 로봇 및 자동화 산업 수요 확대 배경

베트남의 산업용 로봇 도입은 2010년대 중반 이전까지 제한적이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글로벌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입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들어섰다. 2015년 한-베 FTA를 시작으로 EU-베트남 FTA, CPTPP 등 주요 협정이 연이어 체결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급증했고, 베트남이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삼성, LG, 폭스콘 등 글로벌 전자기업이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고도화된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외국계 기업 주도의 자동화 흐름은 베트남 전체 제조업의 로봇 활용 기반을 확장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베트남 노동 임금의 꾸준한 상승도 로봇 도입 확산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임금이 연평균 8~10%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월평균 소득은 약 830만 동(317달러), 2분기에는 약 820만 동(314달러)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또한 2026년 최저임금 7.2% 인상 발표 등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제조업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 및 로봇 설비 도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로봇 도입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로봇 및 자동화 산업 교역 동향

베트남의 산업용 로봇 수입 구조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베트남 컨설팅기업 B&Company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전체 수입의 약 51.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공급량, 부품 접근성 등에서의 우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약 14.8%로 2위를 차지하며 정밀 자동화 장비 수요를 나타냈고, 한국은 약 10.2%를 기록하며 베트남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对**베트남 로봇 및 자동화 관련 품목 수출은 최근 3년간 품목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산업용 로봇(HS 8479.50)은 2024년 1360만 4천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반면, 운반·적재용 로봇(HS 8428.70)은 2024년 412만 9천 달러로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물류 분야 중심의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을 시사했다. 한편, 제어 시스템(HS 8537.10~20 등)과 센서류(HS 9031.80 등) 등의 자동화 솔루션 품목은 연도별 증감폭이 엇갈려 기업별 수요와 설비 투자 시기가 다르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로봇 및 자동화 산업 주요 기업

베트남 로봇 시장은 Fanuc, Yaskawa 등 일본 기업과 ABB, KUKA 등 유럽계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설비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전자, 자동차 제조 현장의 조립 및 용접용 로봇을 주로 생산하며 로봇팔, PLC, 서보 시스템 등 제어 솔루션도 함께 공급한다. 유럽 기업들은 고정밀 용접 로봇, 물류 이송 로봇, 패키징 자동화 장비 등 고도화된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제조업체와의 시스템 통합(SI)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 주도 속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들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LS일렉트릭 베트남 법인은 스마트 전력 및 자동화 제품과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현지 로컬 기업인 파텍(FATECH)은 2016년에 설립되어 생산라인 제어, 모니터링, 검사 및 식별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현장 맞춤형 제어 시스템 구축에 강점을 보이며 다국적 기업 시장 속에서 비용 경쟁력과 빠른 현지 대응력을 바탕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로봇 산업 성장의 한계와 인력 기반 구축 노력

베트남 로봇 산업은 제조업 확장과 함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베트남 RMIT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로봇 도입이 주로 외국계 제조 공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지 중소기업은 높은 초기 비용 부담, 유지보수의 복잡성, 그리고 숙련 기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도입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숙련 기술자 부족은 자동화 전환 속도를 늦추는 주요 병목 현상으로 분석된다. 2022년 맨파워그룹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력 중 숙련 노동자의 비중은 12% 미만에 불과하며, 낮은 숙련도는 자동화 수준 향상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25년 3분기 기준 비정규직 종사자가 약 326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2.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기술 인력 기반이 취약한 구조이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 기업, 대학은 인력 기반 강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고기술 분야 인재 양성 프로젝트(2025~2035, 2045 비전)'를 통해 AI, 로봇 등 핵심 분야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대학의 관련 학과 신설 및 직업 훈련 과정에 자동화 기술 과목을 포함하는 등 교육 체계를 개편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ABB가 호치민시 국제대학 등과 협력해 로봇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가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출범해 AI, STEM 기반 실습 프로그램

제공하는 등 인력 양성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베트남 정부 정책 : 디지털기술산업법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기술산업법(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을 통해 디지털 기술 제품,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군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연구개발 지원, 기술 표준 구축, 인력 개발, 투자 인센티브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31/2025/TT-BKHCN에서는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이동 로봇, 로봇 제어 및 운용 소프트웨어 등 로봇 및 자동화 산업을 국가 육성 10대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군에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법은 전문 인력 확보를 중요한 정책 축으로 삼아, 제18조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개발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핵심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고급 기술 인력에게 국가 및 지방정부가 재교육 및 고급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19조는 국내외 고급 디지털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개인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우대 조치를 마련하여 로봇 관련 기술 인력에도 직접적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세제 및 투자 지원 측면에서 제16조와 제28조를 통해 디지털 기술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공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히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을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업은 장기간의 법인세 인하 및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로봇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베트남이 로봇 및 자동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시사점

베트남의 로봇과 자동화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는 외국계 대기업 중심의 초기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자동화 필요성은 높지만, 초기 투자비 부담, 유지보수 인력 부족, 장비 운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실제 도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베트남 시장은 급격한 확대보다는 시험 적용과 부분 자동화 중심으로 천천히 확산하는 구조이며, 이는 장비 판매나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보다 시장의 속도에 맞춘 세밀한 전략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접근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글로벌 전자기업 등 이미 자동화 경험이 축적된 고객에게는 공정 안정화와 전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화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술 안정성과 빠른 현장 대응력은 한국 기업이 가진 강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베트남 현지 중소기업에는 소규모 공정 자동화, 단독 로봇 셀, 협동 로봇 기반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소프트웨어의 기초 단계 등 부담이 낮은 현실적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적합하다. 베트남 로봇 시장은 이러한 두 고객군이 각기 다른 속도로 자동화를 확대해 나가며 점진적으로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봇의 초기 도입 단계에 있는 중소 제조업의 경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동화 범위를 넓혀가는 단계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산업 특성과 기업 규모별 수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라톤 열풍이 키운 베트남 러닝 시장의 질주

- 마라톤 참여 확산이 견인하는 러닝·웨어러블 시장 성장
- 도시별 대회 확대와 '대회 경제'의 부상

베트남 러닝 및 웨어러블 시장 성장 분석

베트남의 러닝 및 웨어러블 시장은 마라톤 참여 확산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러닝화 시장 매출은 2023년 6,236만 달러에서 2029년 7,189만 달러로 연평균 약 2%대의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록 관리와 운동 데이터화에 익숙한 젊은 소비층 증가에 따라 스마트워치 시장은 2023년 9,775만 달러에서 2029년 1억 8,447만 달러로 약 89%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성장은 하노이와 호치민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안정적인 러닝 수요가 확산되는 것을 반영하며, 러닝은 이미 베트남의 생활 스포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마라톤이 베트남을 사로잡은 이유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생활 운동' 러닝이 베트남에서 빠르게 자리 잡은 주된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 있다. 러닝화 한 켤레만 있으면 별도의 시설 이용료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베트남 도심 내 공원, 호수, 하천변 산책로가 촘촘하게 조성되어 러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한 심야 러닝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평일 출근 전 짧은 조깅이나 주말 가족 단위 러닝도 도시 문화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체육의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커뮤니티가 만든 폭발력베트남 러닝 커뮤니티는 Zalo, Facebook, TikTok 등 온라인 기반 그룹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노이와 호치민 전역에서 새벽 그룹 러닝이 정례화되고 마라톤 챌린지가 널리 퍼지면서 신규 러너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사내 러닝 모임이나 마라톤 대회 단체 참여를 늘리는 등 조직 단위 활동이 활발하며, 이는 러닝을 개인 운동을 넘어 일상 속 소셜 활동으로 확장하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개인 퍼포먼스 중심의 '스마트 러닝' 확산베트남 러너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뛰는 것을 넘어 심박수, 폐이스, 케이던스 등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훈련 강도와 회복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러닝 문화, 즉 '스마트 러닝'이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자기관리 운동으로의 전환에 따라 스마트워치나 이어버드 등 주변 장비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기기는 마라톤의 필수 장비로 자리매김했다. 현지 시장에서는 Samsung, Apple, Xiaomi 등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마다 마라톤 개최 열풍, 대회 경제의 등장

마라톤 대회가 베트남 전역에서 잇따라 열리면서 '대회 경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외에도 하롱, 푸꾸옥, 사파, 닌빈 같은 관광지에서도 대회가 열리며 숙박, 식음료, 관광 패키지, 스포츠용품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다. 마라톤은 이제 도시를 홍보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VnExpress Marathon, Heritage Race, Techcombank Marathon 같은 대회가 참가비, 패키지 상품, 스폰서십 시장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VnExpress Marathon 관계자는 대회 규모가 2022년 약 3,000명 수준에서 현재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참가자 수 확대보다 도시를 대표하는 국제 규모의 레이스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외국인 러너 비중도 점차 늘고 있어 향후 브랜드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은 흐름

베트남 정부는 결정문 Decision No. 1189/QD-TTg를 통해 2030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 확대, 2045년까지 건강·레저 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마라톤은 지역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도시 브랜드 강화 + 관광 연계'가 가능한 대표적인 축제로 평가되며, 국가 레저 산업 전략의 핵심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러닝 시장은 생활 스포츠 확산과 함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추었으며, 마라톤 참여 증가가 러닝화와 스마트워치 소비를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다. 도시별 대회 증가는 관광 및 서비스 소비로까지 연결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놓고 있다. 러닝 커뮤니티와 SNS 기반의 기록 공유 문화가 장비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시장 확장성을 뒷받침하며, '스마트 러닝'의 보편화는 웨어러블 중심의 구매 패턴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한국 기업이 스포츠 및 웨어러블 분야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최대 명절 Tet, 홍삼 음료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 베트남 최대 명절을 앞두고 홍삼 음료를 찾는 소비자, 유통 밴더사 급증
- 현지 소비자 트렌드 및 최근 강화된 건강 보조식품 수입 규제에 주목할 필요

시장동향 및 규모

베트남 최대 명절인 뗃(Tết)을 앞두고 홍삼 음료와 프리미엄 홍삼 선물 세트가 건강 기원 선물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건강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데다, 홍삼이 피로 회복, 자양강장, 면역력 강화 등 다각적인 효능을 갖춘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선물 시장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홍삼 선물은 '오래 지속되는 건강 기원'이라는 전통적 문화와 맞물려 중·장년층뿐 아니라 명절 기간 협력사와 직원 선물을 준비하는 기업 고객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가격대와 구성의 선물 세트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홍삼 제품을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및 홍삼 제품(HS 2106.90)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8% 증가하며 고성장을 이어갔고, 특히 2021년 이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되어 2024년 기준 1억 320만 달러 규모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는?

베트남 소비자들은 고급 박스, 금색/빨강 톤, 선물 카드 등이 포함된 '보기 좋은' 선물 세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관장(KGC) 등 주요 한국 브랜드들은 현지 공식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양한 기획 세트를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브랜드가 소비 편의성을 고려하여 1회 섭취 분량으로 개별 포장된 선물용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현지 시장에서 명절용 홍삼 음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선호된다. 첫째, 홍삼 농축액 파우치형 제품은 중·고가대에 속하며 휴대성이 강조되어 고급 선물 세트 구성에 적합하고, 기업 고객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증정하는 용도로 높은 인기를 보인다. 둘째, 캔·병 형태의 저가 홍삼 음료 역시 명절 시즌에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대량 구매가 가능해, 선물 바구니(礼) 구성이나 방문 손님 접대용 음료로 활용도가 높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통 구조

베트남에서 홍삼 음료와 홍삼 농축액의 주요 유통 경로는 전문 소매점, 슈퍼마켓, 홈쇼핑, 약국 등으로 나뉜다. 자체 매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현지 도·소매상을 통해 슈퍼마켓이나 현지인이 운영하는 전문 소매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등록 및 규제 강화

베트남 보건부는 2024년 7월 18일, 건강보조식품 및 식이보충제의 오염물질 허용 한계와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한 QCVN 20-1:2024/BYT를 공식 공포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이번 규정은 제품

내 중금속 및 미생물 등 오염물질(contaminants)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maximum limits)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존보다 강화된 품질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이는 규제 강도가 낮았던 건강보조식품 분야의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건강보조식품 신규 등록이나 갱신 시 제출되는 제품 시험 성적서(COA)는 반드시 보건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 17025 등 국제 인증을 충족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결과만 인정된다. 한국 기업은 이에 따라 사전 시험 진행 및 관련 근거 문서 준비가 필수적이며, 통관 단계에서는 제품 등록증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C/O), 수출국 판매 증명서(CFS) 등이 요구된다. 서류 미비 및 수입업자 자격 미달 시 통관 지연 및 등록 반려가 발생할 수 있다. 현지 바이어 NEW GLOPATH 사의 대표 TRAN LY는 규제 강화로 인해 품질이 낮은 제품은 걸러지고, 우수 제품만 시장에 남게 될 것이며, 명절 시즌에는 홍삼 음료나 흑염소 혼합 홍삼 음료 같은 혁신적인 건강 음료가 여전히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점 및 전망

베트남의 구정(Tết)은 현지 최대 명절로, 이 기간 전후로 홍삼 음료 등 건강 보조식품 구매 수요가 급증하며, 전년 11~12월부터 판촉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QCVN 20-1:2024/BYT 시행을 기점으로 가격 중심 구조에서 품질·안전성 중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면서, 시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규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미 국제적 신뢰도를 갖춘 한국산 홍삼 및 건강기능식품은 강화된 규제를 충족할수록 프리미엄 이미지와 안전성을 더욱 강조하여 현지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가치'와 '가심비'를 동시에 중시하는 양면적 소비 성향을 보임에 따라, 고급형 기획 세트와 실속형 번들을 병행 제공하는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베트남 ICT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 2024년 베트남 ICT 소프트웨어 시장 매출 5억 7,779만 달러 기록
- 베트남 ICT 소프트웨어 매출 가운데 최대 비중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동향

베트남 ICT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6년 2억 4662만 달러 규모에서 2024년 5억 7779만 달러로 약 2.3배 성장하였으며, 2030년에는 9억 1436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 기업들의 운영 효율화 요구,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의 확산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운영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ERP, CRM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서 작성 및 협업을 위한 생산성 소프트웨어와 IT 인프라의 근간인 시스템 기반구조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과 DevOps 자동화 도구의 확산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수입동향 및 대안 수입규모

물리적 기록매체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입을 나타내는 HS Code 8523.49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관련 수입액은 2022년 1037만 달러에서 2024년 877만 달러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 매체에서 클라우드 및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이 주요 공급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비중이 하락하고 미국과 대만의 비중이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수입 비중이 6.67%까지 확대되며 점유율을 높였으나, 2024년에는 37만 달러를 기록하며 4.22%로 다소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시장 파악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조 지표 외에도 SaaS 시장 성장률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ICT 소프트웨어 기업 브랜드

베트남 시장은 현지 대표 기업과 글로벌 IT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협력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인 FPT Software는 AI, 데이터 클라우드, Io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등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SDS는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활용한 오피스 자동화 및 디지털 물류 솔루션을 통해 현지 기업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Weaver는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과 AI 기반 업무 자동화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또한 미국의 Intel은 핵심 하드웨어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NTT는 스마트시티와 보안 솔루션 등 산업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유통은 글로벌 벤더가 현지 마스터 유통사에 라이선스를 공급하면, 이를 SI 및 리셀러가 받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특성과 외국 기업의 직접 영업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Synnex FPT, Digiworld 등 대형 유통사들은 단순 배포를 넘어 기술 교육과 영업 지원 등 부가가치 역할을 수행하며, 하위 단계의 SI 및 리셀러는 최종 고객의 시스템 구축과 현지화를 담당합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자(CSP) 중심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며, 데이터 현지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로컬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관세율 및 인증

HS Code 8523.49에 해당하는 물품의 일반 수입세율은 5% 수준이나, 한-아세안 FTA(AKFTA) 또는 한-베트남 FTA(VKFTA)를 적용받을 경우 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공급 방식에 따라 규제 체계가 상이한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은 세관 통관 대상이 아니며 수입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FCT)가 적용됩니다. 반면 물리적 매체에 담겨 수입될 경우 상품으로 간주되어 정식 통관을 거치며, 이때 송장에 매체 가격과 라이선스 가격을 명확히 구분 기재해야 세금 과다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는 별도 인증이 필요 없으나, 보안 및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는 사전 거래 라이선스 및 관계 기관의 수입 허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사점

베트남 ICT 소프트웨어 시장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기술 수용성이 높은 인구 구조 덕분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시장입니다. 클라우드와 AI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 유통사 및 SI와의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진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운로드 및 SaaS 기반 공급이 주류가 되면서 전통적인 관세 혜택보다는 현지 세제 및 디지털 규제 대응이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출 초기 단계부터 공급 방식에 따른 법적·세무적 요건 차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현지 제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맞춤형 사업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 안착의 핵심입니다.



인화학 산업의 핵심 원자재 베트남 황린, 기회와 위기를 들여다보다

- 2026년 1월 1일부터 황린 수출세 10%로 인상

고순도 인계 화학소재의 핵심 기초원료인 황린의 산업적 가치

황린(P4, Yellow Phosphorus)은 고순도 인계 화학소재 제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인산과 정밀 화학은 물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배터리용 인계 소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광석에서 전기로 공정을 통해 추출되는 황린은 제품의 순도가 높을수록 배터리 소재 및 첨단 화학용 분야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황린은 인산, 적린, 인계 난연제, 반도체용 특수ガ스뿐만 아니라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전구체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중간재로 꼽힌다. 현재 기술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상, 글로벌 핵심 광물 및 전략 화학소재 시장에서 황린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2026년부터 베트남 황린 수출세 10%로 인상 예정

지난 2018년 이후 중국이 황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베트남은 미국, 카자흐스탄과 함께 주요 대체 공급국으로 급부상했다. 베트남 북부 라오까이 지역의 인광석 광산을 기반으로 광산 채굴부터 제련, 화학 가공까지 이어지는 일체형 생산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내 희소한 황린 공급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8일 발표된 신규 시행령(Decreue No.199/2025/ND-CP)에 따라 기존 5%였던 황린 수출세를 2026년 1월 1일부터 10%로 인상한다. 또한 2027년부터는 15%까지 세율이 추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수급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베트남 황린 생산동향

베트남의 황린 생산은 연간 7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최대 기업 DGC를 비롯하여 ESACO Lao Cai 등이 주도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은 2022년 17만 6,300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10만 6,800톤, 2024년 10만 5,800톤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원료인 인광석은 북부 라오까이 인근에서 생산되나 최근 원광 품질 저하와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집트 등 해외로부터의 원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인광석 수입 액은 전년 대비 1,951.3%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원광 수급 불안에 대비한 베트남 기업들의 전략적 조달 확대 행보로 풀이된다.

베트남 황린 수출동향

2024년 베트남의 인(HS 2804.70) 총 수출액은 약 3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24.7%), 일본(24.0%), 한국(17.1%)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6,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핵심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독일(199.2% 증가)과 미국(255.8% 증가)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인데, 이는 고순도 황린 및 정밀 화학용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일본과 칠레 등 일부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며 국가별 수요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황린 산업 관련 규제 및 관리 체계

황린은 위험 화학물질이자 전략 광물 기반 소재로 분류되어 생산부터 운송, 수출입 전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관리를 받는다. 베트남 화학물질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생산자는 위험 화학물질 취급 허가 취득이 필수적이며, 설비 안전과 환경 전반에 걸친 법정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자연 발화성과 독성을 지닌 물질 특성상 화재·폭발 방지 설계 및 밀폐 저장 설비,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저장과 운송 시에는 수중 보관이나 특수 용기 사용 등 기술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력 또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 보고와 함께 수출 단계에서도 안전 관련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의 단계적인 수출세 인상 정책은 향후 황린의 수입 가격 상승과 조달 여건 악화라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황린은 에너지 집약적이면서 위험물 성격을 띠고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 변동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 확보 가능성과 품질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생산지가 집중된 북부 지역은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 건기 등 전력 부족 시기에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는 계절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가동률 변동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고, 품질 및 계약 조건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 2구간(팍산-베트남 국경) 착공

라오스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의 2구간(팍산 ~ 베트남 국경) 공사가 계약 체결 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시공사는 남타 건설·교량·도로 그룹이다. 현재 203.8km 전 구간에 중장비가 투입되었고, 노선별 점유구역 확보가 핵심 작업으로 진행 중이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태국-라오스-베트남을 연결하여 주요 국제 물류 회랑을 구성하며, 일부 해상 화물을 육로로 전환시켜 운송 시간과 물류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라오스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 교통 허브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엔티안 타임즈11.28]

▶ 베트남-라오스, 기술·데이터·디지털 전환 협력 확대

베트남과 라오스는 호찌민시에서 열린 2025 가을경제포럼 회담을 통해 기술, 데이터,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강화를 공식 확인했다. 양측은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센터, 지역 디지털 연결성을 미래 협력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베트남은 Project 06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국가 데이터 저장 체계 구축, 인구 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Viettel, VNPT, FPT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라오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양국은 IT·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협력은 라오스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엔티안 타임즈11.28]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세 심각…11월 기준 120만 두 살처분 ‘역대 최고치’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세가 지속되어 2025년 11월 한 달에만 31개 성에서 402건이 신고되었으며, 누적 발병 건수는 2,495건을 기록, 총 123만여 두가 살처분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규모 농장 중심 구조, 소독 및 관리 미흡, 잦은 호우로 인한 높은 습도,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이 주요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지역별 입식 규모가 불안정해지고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생돈 가격이 kg당 5만 동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질병 감시 및 무병 지역 조성을 추진하지만, 축산업계는 소비자신뢰 회복과 정책 지원 없이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insidevina.com12.05]

▶ 썬푸꾸옥항공, 국제선 운항 허가 취득…내년 한국·대만 신규 취항

베트남 신생 항공사 썬푸꾸옥항공(Sun Phu Quoc Air)이 지난달 22일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을 허용하는 확대 항공운항증명서(AOC)를 발급받으며 국제선 항공사로 도약하는 기반을 확보했다. 썬푸꾸옥항공은 내년 3월부터 한국(서울-푸꾸옥) 및 대만(타이베이-푸꾸옥) 노선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며,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퍼시픽에어에이전시(PAA)와 총판매대리점(GSA)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A21NX 항공기 4대를 확보하며 기재 확충을 추진 중이며, 이는 푸꾸옥을 동북아 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설명한다.

[insidevina.com 12.05]

▶ 향후 5년간 베트남, 라오스산 전력 수입 대폭 확대 예정

베트남이 향후 5년 동안 라오스로부터의 전력 수입을 현재의 1,600MW 수준에서 8,000MW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베트남 에너지연구소가 밝혔다. 이는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따른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수입된 전력은 4개의 500kV 송전선 등 총 12개 라인을 통해 송전되며, 특히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라오스 전력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 전력개발계획 8(PDP8)에 따라 라오스는 베트남의 핵심 장기 전력 공급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엔티안 타임즈 12.10]

▶ 라오스-베트남, 2026년 협력계획 승인…양국 교역 30억 달러 접근

라오스와 베트남이 12월 3일 비엔티안에서 제48차 정부 간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 협력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양국은 올해 교역 규모가 약 3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26년 교역액을 10~15% 추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베트남의 라오스 투자는 62억 1,000만 달러로 라오스가 최대 투자처로 부상했으며, 경제 통합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를 재확인했다.

[비엔티안 타임즈 12.10]

▶ 라오스-베트남 철도(Laos-Vietnam Railway) 2026년 착공 예정

라오스-베트남 철도가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PTL(Petroleum Trading Lao Public Company)이 밝혔다. 비엔티안과 베트남 하띤성 봉양항을 연결하는 이 철도 사업은 라오스를 내륙국에서 육상연결국으로 전환하여 해상 물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적 프로젝트다. 라오스 구간 452km, 베트남 구간 약 119km로 구성되며, 총 투자비는 66억 달러로 추정된다. 라오스 측은 이미 현장 조사 및 기술 연구 등 90%를 완료하여 내년 착공이 가능하며, 양국 간 무역과 지역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엔티안 타임즈 12.10]

▶ 라오스 내 베트남 투자, 2025년 25억 달러 달성…전년 대비 59.6% 증가

라오스 부총리 살렘사이 코마싯은 비엔티안에서 열린 투자촉진회의에서 베트남의 라오스 투자가 2025년 25억 달러에 도달해 전년 대비 5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전력, 광업, 농업 등이다. 이 같은 투자 증가는 2024년 개정된 투자촉진법이 9개 우선 분야에 이익세 면제 및 임대료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의는 9건의 투자협력 문서 서명으로 마무리되며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엔티안 타임즈 12.10]

▶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고치’…11월 기준 1,915만명 전년比 21%↑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11월 말 기준 1,915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종전 최고치인 2019년 기록을 초과했다. 이는 비자 정책 완화와 적극적인 관광 진흥 노력 덕분으로 분석된다. 11월 한 달에만 약 198만 명이 방문했으며, 출신국별로는 중국(480만 명)과 한국(390만 명)이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 관광객 증가율이 290%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베트남 정부는 올해 유치 목표를 최대 2,500만 명으로 설정했다.

[vietnamplus 12.15]

▶ 세계 2위 해운사 마스크, 내년부터 베트남서 '전기 트레일러 트럭' 도입

세계 2위 해운사인 마스크가 2026년 1분기부터 베트남 내 컨테이너 운송에 전기 트레일러 트럭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기 트럭은 CFS와 깃라이, 빈즈엉, 동나이 항만 간 운송에 활용되며 CFS 인근에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스크는 초기 비용은 높지만 연료·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와 친환경 공급망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도로 운송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디젤 트럭 전면 대체를 추진 중인 마스크는 204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 등 10여 개국에서 전기 트럭을 도입하고 있다.

[vnexpress 12.15]

▶ 희토류 원광 수출 금지…개정 지질광물법

베트남 국회는 희토류 원광 수출 금지와 광물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지질광물법 개정안을 가결함. 개정법에 따라 희토류는 '특수전략광물'로 분류돼 원광 형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탐사·채굴·가공은 국가가 지정·허가한 기관에 한해 엄격히 제한됨. 국가는 희토류 심층 가공을 국내 부가가치 제고와 산업 생태계 자립 차원에서 추진하며, 통합 지질 데이터 시스템 구축, 수출입 규제, 전략 비축을 병행할 방침임. 희토류 관련 탐사·선광·분리·가공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기술 이전, 전문 인재 양성을 적극 장려함. 정부는 희토류를 반도체·재생에너지·방위·전기차 등 핵심 전략 자원으로 인식하고, 국방·외교적 중요성을 이유로 이번 개정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vnexpress 12.19]

▶ 베트남, 노점상 '비현금결제' 도입률 85% 육박…QR결제 대중화 영향

베트남 정부의 현금 없는 사회 추진에 따라 QR코드 기반 비현금 결제가 대형 소매점뿐 아니라 재래시장과 노점상까지 빠르게 확산 중. 재래시장과 같은 노점상의 경우 QR결제가 신속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거래 속도를 높이고,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금융당국은 QR결제가 잔돈 교환 없이 즉시 결제가 가능해 골목 상점·가판대 등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함. 나파스(NAPAS)의 비엣QR(VietQR) 시스템은 국내 송금용 비엣QR페이와 국경 간 결제용 비엣QR글로벌을 통해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세무·시장 당국은 QR결제가 거래 투명성 제고, 탈세 방지, 데이터 기반 시장 관리에 기여하며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고 분석함.

[vietnamplus 12.19]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Phu Mo Pumped Storage Hydropower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Minh Thach D&L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위치 : Dak Lak Province, Vietnam❖ 프로젝트 진행상황: Proposing to adjusted PDP 8❖ 프로젝트 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ject Duration: 2026-2030➤ Total Cost [USD] : US\$ 220 million➤ Funding Source: Investor's budget (20%) and Loan (80%)➤ Ordering Method: ICB/NCB➤ Type of bid: Investor selection (✓) / F/S () / PMC () / Basic Design () / Detail Engineering () / FEED () / Procurement (✓) / EPC (✓) / Construction (✓) / Construction supervision (✓) / Commissioning () / O&M (✓) / Others(description)➤ Bid Deadline: Q4/2026➤ Bidder Selection Method: To be decide❖ Main information:<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project supplies electricity to the National Power System.➤ Capacity: 400 MW➤ Number Turbine: 4x100MW➤ Pumping Water Storage During Off-Peak Hours➤ Generating Electricity During Peak Hours of the Day➤ Estimated Power Generation Capacity: 2,000MW/day; 730,000 MWh/year➤ Transmission line: 220kV➤ Electricity price: 13.5 USD cents /kWh❖ 세부일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Q4/2025-Q1/2026:F/S report➤ Q2/2026: Investment decision approval➤ Q2-Q4/2026: Bidding➤ Q1/2027: Construction commencement➤ 2029-2030: COD

▶ [미국] 자동차·부품 15% 등 미 관세 인하 확정

- ◆ 상호 관세 조치는 미 동부 시간 기준 11월 14일 일부 소급 적용되며, 기존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관세에 15% 관세가 추가 부과
- ◆ 자동차·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픽업트럭은 현행 25% 관세율을 유지
- ◆ 목재 제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어(원목, 제재목 등은 10% 유지), 2026년 1월 1일부터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로 적용
- ◆ 항공기·부품은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가 적용되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 대상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 HS 코드, 관세 정정 절차 등의 가이던스를 발표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제네시스 미션』 출범

- ◆ AI 기술과 과학 혁신을 접목하는 미국형 소버린 AI 전략 체계 출범
- ◆ 연방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미국 과학 및 안보 플랫폼' 신설
- ◆ 美 정부, 소버린 AI 플랫폼을 '동맹·블록 전략'의 중심축으로...
- ◆ 한국형 소버린 AI 전략, 국제 협력과 기술 주권 확보 병행 추구 필요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 중국의 첨단 칩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
- ◆ 수출통제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혁신과 시장 점유율 변화 추정
- ◆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로 미국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강조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합의

- ◆ 2025년 NSS의 전략 기조: 세력권 인정과 America First 2.0
- ◆ '트럼프식 먼로독트린' : 서반구 최우선 전략의 재부상
- ◆ 경제안보 우선주의: 공급망·기술·산업 중심 국가안보 체계
- ◆ 민주주의·가치 담론 후퇴, 실용적 고립주의의 강화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 ◆ USMCA 공동재검토 공청회 마무리 및 USTR의 협정 평가 보고서 발간 예정
- ◆ 3국은 협정 기본 구조 유지를 전제로 일부 조정·보완 필요성 제기, 업계·분야별 입장 차 존재
- ◆ 현지, "2026년 북미 통상·투자 환경의 분기점", 주요 일정 및 시나리오에 주목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 ◆ 미국의 WTO 개혁 인식 전환과 핵심 문제 제기
- ◆ WTO 다자체제의 한계 인식 및 구조 개편 필요성 제시
- ◆ 최혜국대우(MFN) 원칙 재검토를 통한 통상 질서 재설계 시도
- ◆ 규범 중심 다자체제에서 선택적 협력 체제로의 전환 신호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 ◆ AI 경쟁력 확보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정합성(harmonization)'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며,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 전략이 강화되는 추세
- ◆ 미국 주도 글로벌 스탠다드 설정을 통한 EU 디지털 규제 등 대외 리스크 해소 제언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 2025년도 연례 보고서 제출
- ◆ 수출통제·제제 기능 통합 총괄 기관 설립,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다수 입법 활동 권고
- ◆ 한국은 중국과 유사한 수출 품목 구조로 인하여 중국 과잉 생산에 취약하다고 보고서 분석
- ◆ 현지 언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 대사관은 보고서에 대해 반발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50)】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 ◆ 트럼프 행정부, 약 9천억 달러 규모 2026년 국방수권법(NDAA) 발효
- ◆ '힘을 통한 평화' 정책 기조를 반영, 미국 국방정책 재편 및 우선순위 제시
- ◆ 국방력 강화, 기술혁신 가속, 중국 견제, 동맹 협력 확대를 핵심축으로 국방정책 개편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51)】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골드만삭스, '26년 세계경제 성장을 2.8%로 '견조(sturdy)'한 성장세 전망
- ◆ 미국은 감세·금융여건 완화·관세 부담 축소로 컨센서스 대비 성장 상회 예상
- ◆ 중국은 제조업·수출 견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동산 부진으로 성장 불균형 지속
- ◆ 고용은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제약으로 정체, 물가는 안정·금리는 하향 수렴 전망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차세대 제조 중심 동남아 겨냥, 베트남에서 AI 로봇시장 선점 나서



<2025 “베트남 국제 기계산업박람회” 장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가 차세대 제조 기지 역할을 더해가는 가운데 이 지역으로 우리 AI 기반 로봇기업들의 시장 진출 확대 기회가 마련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류지호)과 협력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베트남 국제 기계산업박람회(VINAMAC EXPO 2025, 이하 VINAMAC)’와 연계해 ‘K-로봇관’을 공동 운영했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VINAMAC은 2004년 시작된 베트남 대표 산업 전시회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인도 등 15개국에서 약 850개 기업이 참가해 산업기계·자동화·운송·제어·로봇 기술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폭넓은 비즈니스 교류가 이뤄졌다.

K-로봇관 사업은 지난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GITEX(글로벌 정보통신박람회)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로봇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이번 K-로봇관에 참여하는 5개사 ▲(주)유엔디 ▲베어로보틱스 ▲㈜이룸 ▲EF엔지니어링 ▲씨피시스템 포함 한국 단체관에는 23개사의 국내 혁신기업이 참여했고, 베트남 산업 자동화 기업들을 비롯 현지 핵심 바이어 49개사와 6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베트남 로봇 시장은 제조업 확충과 자동화 수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3억~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외국인 투자(FDI) 증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2030년까지 연평균 4%대 성장이 기대된다.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의료·물류·가정용 분야까지 활용이 확산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은 기술적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을 기반으로 베트남 제조업계에서 아직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수요가 증가 중이다. 산업용 로봇의 대(對)베트남 수출은 최근까지 연평균 1,4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운반·적재용 로봇은 2022년 이후 연평균 250%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고위급 교류에서도 AI·첨단산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 8월 또 럼 서기장의 방한, 11월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베트남 방문에서도 관련 협력 확대 의지가 강조되며 정책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2025 “베트남 국제 기계산업박람회”장면>

산업용 로봇 참가기업 U사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노동력 의존 산업구조에서 로봇, AI 융합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로, 한국 기업들의 로봇 기술이 제조 고도화와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베트남 기업들과 폭넓은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경 코트라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과제 추진 속에서 AI 접목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산업용 로봇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베트남 기업과 협력을 통해 우리 로봇 기업이 베트남 및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코참 사무국>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시스

이능기 팀장

1. 퍼시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퍼시스는 사무·생활 가구와 물류·인테리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그룹입니다. 사무가구 '퍼시스', 홈 가구 '일룸', 매트리스 '슬로우', 프리미엄 소파 '알로소', 물류·설치 서비스 '레터스', 인테리어 '퍼플식스', SOHO 특화 브랜드 '데스커' 등 총 8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모(母) 브랜드인 퍼시스가 그룹의 수출을 대표하는 핵심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브랜드 기준 약 67%의 사무가구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G20 정상회의, 한국 철도공사(KTX) 등 주요 국가 프로젝트와 다수 대기업, 해외 진출 한국 법인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베트남에는 2020년 동나이성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현재 약 450명이 근무 중입니다. 초기에는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 유통했으나, 현재는 2층 규모의 1공장 외에 5층 규모 공장 두 동을 추가로 건설 중입니다. 2027년경에는 주요 제품 전 라인을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공급하는 글로벌 허브이자 제2의 본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설명 : 2025년 10월, 호치민시 투득(2군) 지역에 문을 연 퍼시스 베트남의 신규 쇼룸 및 오피스>

2. 주요 사업(생산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시스 그룹은 1983년 창업 이후 40년 넘게 한국 사무가구 시장을 선도해 온 기업입니다. 오피스 가구를 시작으로 홈 가구, 스타트업·벤처를 위한 스몰 오피스·홈 오피스 가구, 매트리스·침대, 프리미엄 소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전 세계 탑 수준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디자인을 개발하고, 한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함으로써 유럽산 고급 가구에 뒤지지 않는 디자인과 마감 품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트리스, 프리미엄 소파 등 세부 카테고리별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며, 각 브랜드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퍼시스는 단순히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 물류·시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타사 가구와 제품까지 배송·설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일부 글로벌 가구 브랜드 제품도 퍼시스 시공팀이 설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브랜드를 통해 사무환경 기획·설계·시공 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가구 회사’를 넘어 ‘사무환경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퍼시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가구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은 분명한 한계와 동시에 큰 기회를 동시에 지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사무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사무가구’라는 독립된 시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소비자는 인테리어 회사에 일괄 발주를 하고, 인테리어 회사가 책상 규격과 색상을 정한 뒤 가장 저렴하게 생산해 줄 제조업체를 찾아 발주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제품을 더 좋게 만들 유인이 거의 없고, 소비자 역시 가장 싼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산 가구는 해외에서 ‘저렴한 제품’으로만 인식되고, 가구 산업 자체가 인테리어 산업에 종속된 채 독립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퍼시스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인테리어에 종속돼 있던 가구를 ‘사무가구’라는 독립된 산업으로 분리하면, 그동안 없었던 브랜드 경쟁과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퍼시스는 베트남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사무가구 브랜드를 세우고, 이를 계기로 현지 브랜드들도 함께 성장하며 산업 전반의 수준이 올라가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출보다는 ‘시장 인식 변화’와 ‘새로운 카테고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기대 수준입니다. 베트남은 전반적인 물가가 한국보다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트남에서 만드는 것은 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가구 역시 한국에서는 자산으로 보고 최소 5년 이상 사용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2~3년마다 교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품질·내구성·인체공학적 설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좋은 가구를 장기간 사용하는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장벽을 넘기 위해 퍼시스는 프리미엄의 포지셔닝보다는 ‘중·중하위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한 제품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조 원가에 마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베트남 시장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이라고 느낄 목표 판매가를 먼저 정한 뒤, 그 안에서 설계와 원가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 SCM, 공장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수차례 베트남을 방문해 약 20여 개 기업을 조사하며 실제 수요와 가격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한국 및 유럽 디자이너들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생산은 베트남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특히 베트남의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품질 검사를 샘플링이 아닌 ‘전수 검사’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가격 수준에서 한국의 품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고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5.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베트남 시장을 위한 합리적 가격대 사무가구 라인업과,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허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중하위 시장을 겨냥한 신규 제품군을 개발 중이며, 12월 개발을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베트남 시장에 본격 출시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가격대 안에서 한국·유럽 수준의 디자인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공장을 퍼시스 글로벌 생산·유통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동나이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한국으로의 역수출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와 더 나아가 미국,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베트남에서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즉, 베트남 법인을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제2의 본사’로 성장시키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또한 호치민에 문을 연 쇼룸은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코워킹 스페이스와 세미나·트레이닝 공간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부족하거나 50명 이내의 행사를 준비하는 기업, 출장 중 근무 공간이 필요한 분들께 쇼룸을 무료로 개방해 퍼시스의 사무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베트남 시장에 특화된 새로운 시도입니다.



< 이미지 설명: 코워킹·세미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퍼시스 호치민 복합 쇼룸(문의: 퍼시스 호치민)>

6.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시는 한국 기업들께 두 가지를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어떤 시장을 타깃으로 할지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현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이 시장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베트남 로컬 시장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법인 설립, 마케팅·유통, 인력 채용, 사무실 임대와 인테리어 등 전 과정에서 전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퍼시스는 이 가운데 ‘공간을 꾸미는 부분’, 즉 사무환경 구축에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만큼,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과 장기적인 협업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의 고충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서설

초기 한국 투자자들의 베트남 진출은 저렴한 노동력을 목적으로 한 제조법인 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래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베트남의 소비 시장 또한 커져감에 따라 단순 생산 수출 기지로서의 베트남이 아닌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투자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스타트업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문을 제공한 결과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스타트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청년들이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실무상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법 및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

가. 자본금 문제

단순 자본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베트남인들과 달리, 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할 때 반드시 투자법에 따른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법률에 존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인과 동일하게 소자본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 또한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법상 투자 허가를 진행하는 경우 지나치게 작은 투자금은 투자 승인 절차에 실질적인 장애 사유로 작용하며 인허가 승인이 어려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스타트업 투자자 입장에서 이 “지나치게 작은 투자금” 기준 또한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 법률을 준수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나.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

규모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투자법 인허가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천만 원의 개인 투자 회사이든, 자본금 1억 달러의 큰 제조공장이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은 유사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증,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들의 경우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큰 만큼 작은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자유로운 방법으로 약정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베트남 법률상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단순 계약서만 준비해야 하는 것 외에 투자법상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로서 족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와 달리, 베트남은 투자법상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인허가 절차 비용 및 절차는 투자 자체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는 투자는 투자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자유로운 합의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직된 인허가 절차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투자 합의에 제약 요건이 됩니다.

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요건 확인

베트남은 투자법상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투자 승인을 검토하는 가장 첫 단계는 해당 비즈니스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허용되어 있는지, 다른 조건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새로운 신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업종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비즈니스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부터가 꽤나 복잡한 일에 해당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인데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부담이므로 첫 단계부터가 쉽지 않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마치며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을 전제로 투자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에 새로운 신사업을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전망이 상당히 밝아 많은 신규 창업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대표님들 또한 많습니다. 제약 조건을 확인하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봄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베트남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2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병 오년은 '붉은 말띠의 해'로서, '뜨거운 태양처럼 열정적이고 달리는 말처럼 빠르고 강한 기운의 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의미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계시는 모든 분이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한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2025년 결산 마감 및 외부 회계감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법인이 많을 텐데요. 이번 호부터는 '베트남 회계기준(VAS)에 따른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기'라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할까 합니다.

재무제표란?

재무제표는 하나의 기업이 특정 기간(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동안 이루어낸 성과로서, 기업 활동의 과정 및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일련의 표를 의미합니다. 소위 '지난 1년간의 성적표'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각 기업이 자신들만의 기준이나 매년 서로 다른 기준, 혹은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작성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하나로 정해 모든 기업이 준수하게 만든 규정을 '회계처리기준'이라고 하며, 베트남에서는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약칭 'VAS')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부 회계감사는 각 기업이 이러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 요소

VAS에 따라 작성되는 기본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한국의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 해당하며, 특정 시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보여줍니다.

(2)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한국의 포괄손익계산서(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에 해당하며, 특정 기간 동안의 기업 경영 성과(수익, 비용, 이익)를 보여줍니다.

(3)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특정 기간 영업, 투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과 유출을 보여줍니다.

(4) 재무제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수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참고: 한국의 기본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자본변동표'는 베트남 회계기준(VAS)에서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베트남 회계기준(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의 주요 특징

베트남 재무제표를 이해할 때 한국의 회계기준과 다른 특징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통일된 계정과목표 (Chart of Accounts, CoA) 사용

베트남 재무부는 기업 재무제표를 위한 통일된 계정과목표(Circular No. 200/2014/TT-BTC)를 발행했습니다. 현재는 이를 대체한 Circular No. 99/2025/TT-BTC가 2026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은 이 통일된 계정 코드를 활용해야 하며, 이는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한국과 동일하나 베트남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 세무 목적의 회계 (Tax-Based Accounting)

VAS는 회계상의 이익을 세무상의 과세소득 계산에 직접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세무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이익(VAS 기준)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세무 조정 사항)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부분 비용의 이연처리

VAS는 상기 (2)의 목적과 일관되게 과세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될 만한 항목도 상당 부분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를 '비용의 이연화'라고 부릅니다. 즉, 당장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줄이는 대신, 이를 자산으로 처리해 비용화(化)되는 시간을 늦춤으로써 가급적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맺음말

독자 여러분 모두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도 이번 호에 이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희토류 수출 금지 개정법 채택

FTA 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1일 지질광물법(Law on Geology and Minerals)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희토류(Rare Earth Minerals)를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두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희토류를 국가 전략 및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원광(raw ore)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희토류가 반도체, 재생에너지, 방위 기술, 전기차 배터리, 드론, 군용 로봇,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확대에 따라 향후 10년간 희토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가 국방·안보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자원이라는 판단 하에, 국가 차원의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법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희토류의 전략자원화 및 주요 제도 변화

개정법에 따르면 희토류는 “특별 전략 광물(special strategic mineral)”로 분류되며, 희토류 광물의 지질 조사, 탐사, 채굴 및 가공 활동은 국가 희토류 전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관련 활동은 국가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기관 또는 기업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전반적인 관리·통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원광 형태의 희토류 수출은 금지되었으며, 이는 베트남이 단순 원자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정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희토류의 심층 가공은 국내 부가가치 제고와 국가 희토류 전략의 자립적 이행을 위한 현대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질 조사 및 탐사 결과를 통해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보호가 필요한 희토류 광물 매장지로 정의되며,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보호됩니다.

2. 수출입 규제, 데이터 관리 및 비축 정책

개정법은 희토류의 수출입 활동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시기별 정책 판단에 따라 희토류의 수입 및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국내 수급 안정과 전략적 자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희토류 원소에 대한 통합 지질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 매장량, 품위, 채굴량, 생산량 등 전 과정의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향후 수출입 규제, 비축 정책, 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회토류 비축 정책도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정부는 국제 공급망 상황과 국내 산업 수요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전략 비축량을 유지·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제협력·기술 이전·전문 인력 양성 정책

개정법은 회토류 원소의 탐사, 선광, 분리 및 심층 가공 전반에 걸친 연구·기술 이전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회토류 가공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을 정책적 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전문 인력 교육과 연구 기반 확충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4.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영향

이번 개정으로 원광 수출 중심의 사업 모델을 운영해 온 기업은 구조적인 사업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 가공 시설 투자,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합작 모델이 주요 대응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이 육성하고자 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및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나, 국가 승인 절차 강화, 데이터 보고 의무, 규제 준수 부담 증가 등 정책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5. 결론

이번 지질광물법 개정은 베트남이 회토류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원광 수출 금지와 국가 주도의 관리·통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순 원자재 수출 중심의 기존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심층 가공, 기술 협력,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회토류 규제 강화와 함께 공공 투자 사업, 민관협력사업(PPP) 및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림 생산림 및 비농업용 토지에 한해 채굴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되 국방·안보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은 전략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기업은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인허가, 데이터 관리, 수출입 통제 등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베트남의 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협력 및 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역 소개 – 후에시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 4,947.11 km² 인구 : 1,432,986 명 도시 거주 비율 : 66.33% (행정구역 통합 후 추정)
지정학적 위치	후에는 2025년부터 베트남의 여섯 번째 중앙직할시가 되었다. 베트남 북중부 및 중부 연해 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부 지역의 국가 핵심 성장 거점에 속한다. 후에는 '베트남 페스티벌 도시', '아세안 문화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자연보전기금(WWF)이 선정한 베트남 최초의 국가 차원 녹색 도시이기도 하다.
교통 시스템	후에는 베트남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교통축이 지나며, 베트남과 라오스·태국·미얀마를 연결하는 동서경제회랑에서 동해 해상 관문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후에는 후에-퐁냐케방(Phong Nha Ke Bang)-다낭-호이안으로 이어지는 유산 관광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하롱-퐁냐-후에-호이안-미선(My Son)-호치민 루트'를 잇는 베트남 문화·자연 유산의 길 중심에 위치한다.
GRDP 성장률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DP 예상 성장률 : 9% 1인당 GRDP : US 3,200~3,500 달러/년
경제 규모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출액 : 14.3억 USD, 총수입액: 12억 USD ('25년 추정치)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건설업(13.49%), 서비스업(8.43%), 농림어업(1.31%) ('25년 첫 9개월), 순생산물세(7.07%)
경제구조 (‘25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및 건설업 : 32 ~ 33% 서비스업 : 48 ~ 49% 농림어업 : 9 ~ 10% 순생산물세: 9%
인적자원 (행정구역 통합 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연령 인구 : 626,142명(비율 43.69%) 노동 연령 인구 중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 : 75.34% 자격증 소지 노동자 비율 : 55~58% 2025년에는 17,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중 2,100명 이상 해외 취업.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령 제293/2025/ND-CP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 규정 제2구역: 투언안(Thuan An), 화짜우(Hoa Chau), 미트엉(My Thuong), 비자(Vy Da), 투언호아(Thuan Hoa), 안구우(An Cuu), 투이쑤언(Thuy Xuan), 김롱(Kim Long), 흐엉안(Huong An), 푸쑤언(Phu Xuan), 즈엉노(Duong No)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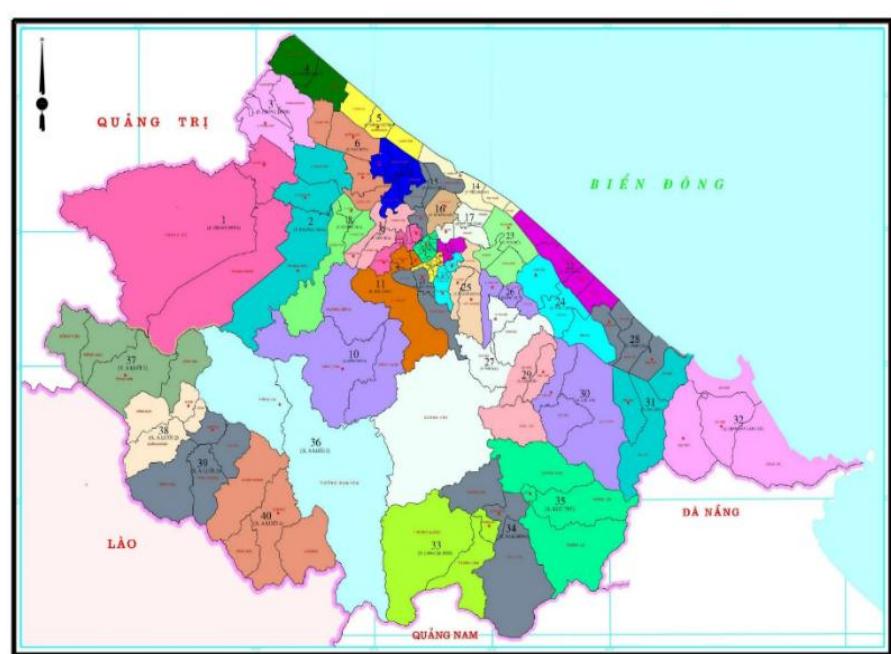
구분	내용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구역: 풍디엔(Phong Dien), 풍타이(Phong Thai), 풍딘(Phong Dinh), 풍푸(Phong Phu), 풍꽝(Phong Quang), 흐엉짜(Huong Tra), 김짜(Kim Tra), 흐엉투이(Huong Thuy), 푸바이(Phu Bai), 타잉투이(Thanh Thuy) 등; 단디엔(Dan Dien), 꽝디엔(Quang Dien), 빈디엔(Binh Dien), 푸빈(Phu Vinh), 푸호(Phu Ho), 푸방(Phu Vang), 빈록(Vinh Loc), 흥록(Hung Loc), 록안(Loc An), 푸록(Phu Loc), 쩐마이-랑꼬(Chan May-Lang Co), 롱꽝(Long Quang), 남동(Nam Dong), 케째(Khe Tre) 읍 제4구역: 기타동과읍.
외국인 투자 (‘25.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외국인 투자: 150건 FDI 프로젝트에 US 47억 달러. 한국 투자: 19건 프로젝트에 US 57,878,000달러. 한국은 후에시에 투자한 22개 국가 중 투자 규모 기준으로 4위,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투자환경

후에시 위치



후에시 시내 지도



후에시의 위치 및 시내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국도 1A, 호치민 도로, 북-남 고속도로, 후에시를 관통하는 해안 도로 및 체계적으로 구축된 건널목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북-남 고속도로 중 후에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총연장 102.4km로, 중부 지역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 축이며, 운송 수요를 충족하고 국도 1A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후에시는 베트남 중부 지역의 국제 환승 중심지인 다낭 국제공항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베트남 중부 지역의 두 핵심 도시인 후에시와 다낭시는 하이반(Hai Van), 푸자(Phu Gia), 프억뜨엉(Phuoc Tuong) 등 현대적인 도로 터널 시스템을 갖춘 국도 1A로 연결되어 있어 도시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 현재 후에시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해안 관광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투언안(Thuan An) 하구를 가로지르는 교량과 후에 해안 도로 노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에시 해안선을 따라 해안 도시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의 사회·경제 및 관광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해안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후에시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할 전망이다.

(수로)

- 128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강점으로 하는 후에는 자연 수심 9~14m의 희소한 항만 여건을 갖춘 쩐마이 심해항과 투언안 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쩐마이' 심해항은 세계 최대급 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항만이다.
- 쩐마이 심해항(국가급 제1종 항만)은 7만 톤급 선박, 최대 4,000TEU 이상의 컨테이너선을 조건 충족 시 수용할 수 있으며, 225,000GT(총톤수) 국제 크루즈선과 조건 및 전력개발계획에 부합할 경우 15만 톤급 이상의 액체·가스 화물선도 접안이 가능하다. 투언안 항(지방급 제2종 항만)은 3,000~5,000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내수 수로는 하천과 석호를 포함해 총연장 560km에 달한다.

(철도)

- 하노이-호치민시 철도 노선은 국도 1A를 따라 후에시를 관통하며, 후에시 구간의 총연장은 112.5km이다.

(항공)

- 2023년 4월 28일, 푸바이 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 연간 처리 능력을 기준 15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중 국내선 400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피크 시간대에 2,500명의 여객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푸바이 국제공항은 현재 후에시의 국제적 통합과 개방을 이끄는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관광 및 천연 자원

2024 후에 페스티벌



2025년 후에 국가관광의 해



후에는 산악, 평야, 하천 및 호수 등 다양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 경관·도시·문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상적인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각종 페스티벌과 다양한 관광 및 스포츠 활동을 개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후에는 전통 문화 자원을 관광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으로, 베트남의 5대 국가 관광 중심지 중 하나이다. 또한 호이안, 미선, 풍▶캐방 국립공원 등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 및 세계자연유산과 인접한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국가들의 고도(古都) 도시들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입지를 갖추고 있다.

후에는 ‘베트남의 페스티벌 도시’, ‘아세안 문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자연보전기금이 선정한 베트남 최초의 국가 차원 녹색 도시라는 상징적인 명성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후에는 2024년 아세안 관광포럼(ATF)에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2024년 아세안 청정 관광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상한 것이다. 아울러 후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가 주관한 ‘트레블러스 초이스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Travelers' Choice Best of the Best Destinations)’에서 2024년 세계 최고 문화 관광지 25곳 중 8위에 선정되었다.

(토지자원)

후에시의 토지는 10개 토양군으로 구성될 만큼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중 홍토(Laterite)가 347,431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전체 자연면적의 68.7%를 차지한다.

(수자원)

후에시의 지하수 자원은 담수와 광천수를 포함해 비교적 풍부하다. 음용 및 치료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광천수는 총 7곳으로, 산림 지역과 구릉지에서부터 해안 평야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탄띤(Thanh Tan), 미안(My An), 아로앙(A Roang) 지역이 가장 대표적이다.

(산림 자원)

후에시의 산림 지역 대부분은 해발 250m 이상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꽝찌(Quang Tri)성과의 경계에서 남쪽으로는 다낭시와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있다. 중·저산지대로 이루어진 쪼엉선박(Truong Son Bac) 산맥에 속하며, 최고봉은 해발 1,774m의 동응아이(Dong Ngai)로 산악 지형은 비교적 복잡하다. 전체 산림 지역의 면적은 약 308,825ha에 달한다.

(광물 자원)

현재까지 후에시 전역에서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25종의 광물 자원에 대해 총 120개의 광산이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주요 자원으로는 비금속 광물, 건축 자재, 예상 매장량 700만 톤 이상의 티타늄 사광, 매장량 약 170만 톤의 이탄 등이 있다. 이탄 자원은 주로 풍디엔(Phong Dien)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푸방, 푸록 등 일부 지역에서도 분포하는데, 이는 미생물 비료 가공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백사 자원은 풍디엔과 푸방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총 예상 자원량은 3,878만 톤 이상에 달한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방향

2025년 11월 30일 기준, 후에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규 투자등록증명서를 총 10개 프로젝트에 발급하였으며, 이 중 7개 투자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및 편마이-랑꼬 경제구역에 위치해 있다. 신규 프로젝트의 총 등록금은 3,627만 달러에 달한다. 누적 기준으로 현재 후에시에는 총 150여 개의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 운영 중이며, 총 등록 투자액은 48억 달러이다.

- 산업생산지수(IIP) : 9~10% 증가
- 산업생산액(2010년 불변가격 기준) : 약 53~54조 동으로, 2024년 대비 10.5~11% 증가
- 수출액 : 14.3억 달러로 10% 증가, 수입액 : 10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동일 수준
- 편마이-랑꼬 경제특구 및 각 산업단지를 포함한 후에시 경제·산업 구역의 현재 고용 인원은 약 4만~4만 5천 명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의 지역 경제·사회 발전 목표에서 지향했던 약 4만 3천 명 규모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해당 인력 고용 수치는 제조업, 서비스업 및 각종 투자 프로젝트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 우대정책

항목	투자지역	법인세/수입세/토지세	토지임대료
산업단지	쩐마이-랑꼬 경제특구	2020년 투자법에 따라 적용	2020년 3월 30일자 정부령 제37/2020/ND-CP호에 따라 적용
	아덧(A Dot)국경관문 경제특구		
	꽝빈(Quang Vinh) 산업단지		
	푸다(Phu Da) 산업단지		
	라선(La Son) 산업단지		
	푸바이(Phu Bai) 산업단지		
	뜨하(Tu Ha) 산업단지		
	퐁디엔(Phong Dien)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현황

➤ 외국인 투자

후에시 내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순번	사업명	투자국가	총 투자액 (USD)
1	후에 이온 쇼핑몰	일본	160,670,710
2	Luks 투아티엔후에 시멘트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 (1·2·3·4호기)	홍콩	171,806,000
3	Laguna 랑꼬 복합 리조트	싱가포르	875,000,000
4	맥주 및 기타 무알코올 음료생산·유통·수출 투자 프로젝트	덴마크	107,706,780
5	Kanglongda 공장	홍콩	206,990,000
6	UALS 유한회사 지속가능한 건축·기술·조경 개발 및 컨설팅 센터	한국	40,207,000
7	SCAVI 후에 속옷 및 스포츠웨어 생산 공장 프로젝트	프랑스	25,000,000
8	푸선(Phu Son) 생활폐기물 처리 공장	홍콩	74,555,000
9	롯데시네마 후에 프로젝트	한국	19,000,000
10	퐁디엔 산업단지 C구역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 프로젝트	한국	20,000,000

➤ 한국 투자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19개 프로젝트에 총투자액 US 57,878,000 달러 투자.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지니스

순번	사업명	투자자	위치 (산업단지)	총 투자액 (USD)
1	생수 생산 및 산업용 세탁 서비스	티엔푹(Thien Phuc) 관광 주식회사 (한국 기업과 합작)	안떼이(An Tay)동	625,000
2	관광객 운송 프로젝트	MTV ACE 베트남 유한회사 (한국 기업과 합작)	하이바쯩(Hai Ba Trung)거리 45/1번지	1000,000
3	롯데시네마 후에 프로젝트	롯데시네마 베트남 유한회사 후에 지점	Big C 후에 쇼핑몰 3층	19,000,000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단지 조성 프로젝트	베트남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한국 기업과 합작)	응우옌 쨘엉 또(Nguye Truong To)거리 23/33번지	10,000
5	후에에서의 고급 건축 설계 컨설팅 서비스 개발	건축 설계 컨설팅 유한회사 (한국 기업과 합작)	투언호아동 택한(Thach Han)거리 3번지	450,000
6	고급 건설 및 관광 서비스 개발 투자 프로젝트	Angel 9 서비스 유한회사 (한국 기업과 합작)	투이방(Thuy Bang)읍 1 끄짜잉(Cu Chanh) 마을	220,000
7	정보기술 콘텐츠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	퐁찌끼엔(Phung Chi Kien)거리 44번지	200,000
8	경영 컨설팅 서비스 개발	KMH 유한회사	투언호아동 벤응애(Ben Nghe)거리 65번지	220,000
9	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KMH GLOSTAR 유한회사	투언호아동 쥐띤(Duy Tan)거리 3/6번지	220,000
10	퐁디엔 백사 가공 투자 프로젝트	푸팅(Phu Thinh) 광물기술 주식회사 (한국 기업과 합작)	퐁디엔 산업단지	5,000,000
11	푸바이 산업단지 3단계 인프라 투자 및 운영	Ace Vina Construction	푸바이 산업단지	5,000,000
12	퐁디엔 산업단지 C구역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 프로젝트	C&N 후에-한국 유한회사	퐁디엔 산업단지 C구역	20,000,000
13	Takson 후에 의류 공장	Takson 후에 1인 유한회사	푸바이 산업단지	1,000,000
14	Hanex 후에 의류 공장	Hanex 후에 1인 유한회사	흐엉투이(Huong Thuy)읍 푸바이 산업단지(1·2단계) C-3 필지	10,000,000
15	목재 제품 생산 및 가공	Lee&Park Wood Complex 유한회사	퐁디엔 산업단지 C구역 CN-24 필지	4,000,000



산업단지 현황

➤ 후에시 내 주요 산업단지 정보

순번	산업단지명	면적 (ha)	투자 유망 분야	비고
1	짠마이-랑꼬(Chan May – Lang Co) 경제특구	27,108	소프트웨어 산업, 신소재, 정밀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생산 및 조립, 자동차·오토바이의 생산·조립 등 첨단기술 산업 및 청정산업;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 산업; 유·의류 산업 및 섬유 원·부자재 산업; 신발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산업; 항만 및 해상운송 관련 산업; 수출을 위한 농림수산물 가공 산업	
2	아덧(A Dot) 국경관문 경제특구	10,184	상업·서비스·관광·산업·도시 및 농림업을 포괄하는 다분야·복합형 경제구역	국제 교역의 관문이자 주요 교통 거점이며, 후에시 서부 지역의 핵심 경제·문화·서비스·관광 중심지 중 하나임.
3	꽝빈(Quang Vinh) 산업단지	150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 및 운영 사업; 농림수산 가공 산업; 섬유·염색·봉제 산업, 섬유의류 산업; 농·어업용 기자재 생산	
4	푸다(Phu Da) 산업단지	250	중앙집중식 폐수 처리 공장; 수산·해산물 양식과 가축·가금 사육을 위한 사료 가공 투자 프로젝트; 수산·해산물 및 농산물 가공; 의류 제조; 전자 산업; 가전제품 생산 및 기타 산업 분야	
5	라선(La Son) 산업단지	120	첨단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청정 산업, 지원 산업, 자동차·오토바이 조립 산업, 음료 제조 등	
6	푸바이(Phu Bai) 산업단지	763.05	첨단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청정 산업, 지원 산업, 자동차·오토바이 조립 산업, 음료 제조 등	총 4단계로 구성됨 • 1·2단계: 면적 196.75ha 기술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완비되어 있으며, 다수의 공장이 현재 생산·운영 중임. 입주율은 약 98%에 달함.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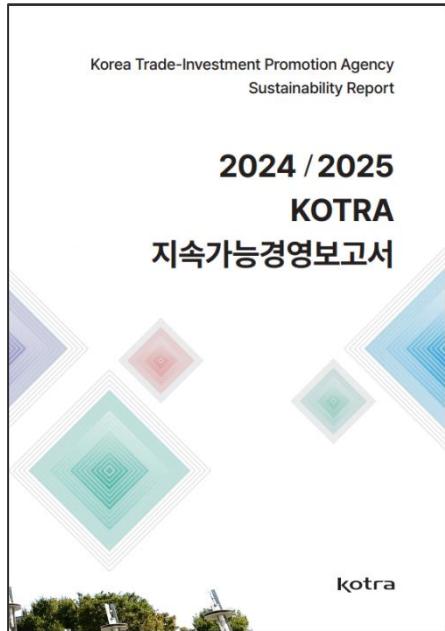
순번	산업단지명	면적 (ha)	투자 유망 분야	비고
6	푸바이(Phu Bai) 산업단지	763.05	-	<p>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건설 투자주: 투아티엔후에 건설 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면적 51 ha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건설 투자주: Gilimex 산업단지 주식회사. 4단계: 면적 515.3 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면적 87.5ha;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건설 투자주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 및 개발 1인 유한회사 2차: 면적 427.8ha;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건설 투자주 Gilimex 산업단지 주식회사
7	뜨하(Tu Ha) 산업단지	250	중앙집중식 폐수 처리 공장,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 및 운영 프로젝트, 청정 산업, 지원 산업, 전기·전자 산업, 섬유·의류 산업, 가죽·신발 산업, 기계 가공 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면적: 150ha 이 중 37ha는 Hello International Vietnam Co., Ltd.가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투자주로서 이미 임대가 완료되었음. 잔여 면적은 현재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자 유치 또는 직접 임대를 추진하고 있음.
8	퐁디엔(Phong Dien) 산업단지	700.64	중앙집중식 폐수 처리 공장, 석영사·실리케이트 원료의 고부가가치 가공 프로젝트, 건설 자재 생산, 농·임산물 가공, 섬유·봉제 산업, 패션 의류 제조 산업, 섬유·의류 산업을 위한 지원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개 구역으로 구성됨: A구역: 142.78ha로, 현재 일부 공장이 이미 가동 중임.



순번	산업단지명	면적 (ha)	투자 유망 분야	비고
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구역: 147.17ha로, 모래 가공 산업단지이며 Prime Thien Phuc JSC가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구축의 투자주임. • C구역: 126.05ha로, C&N 비나 후에-한국 유한회사가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구축의 투자주임. • 풍디엔 비글라세라 구역(Phong Dien Viglacera): 284ha로, Viglacera Corporation – JSC가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 구축의 투자주임.

투자 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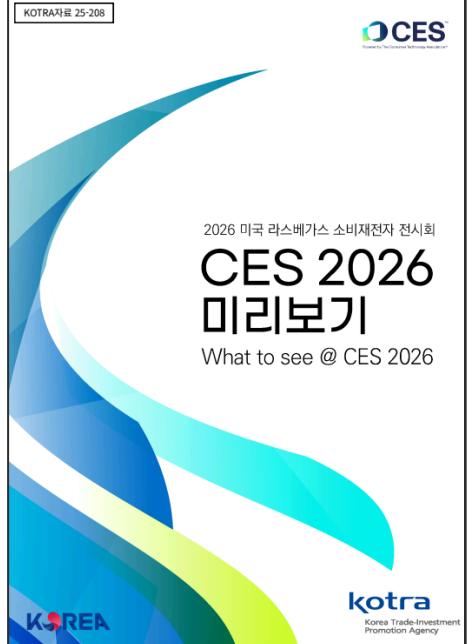
기관명	담당자/직위	양락처/이메일
후에 투자무역 촉진 및 비즈니스 지원 센터	Ms. Nguyễn Thị Bích Thảo : 센터장	Email: ntbthao. ipbsa@hue.egov.vn
후에 투자무역 촉진 및 비즈니스 지원 센터	Mr. Phan Thanh Nhật Minh : 전문가	Email: ptnmminh. ipbsa@hue.egov.vn



2024/2025 KOTRA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ABOUT KOTRA**
2. **KOTRA ESG SYSTEM**
3. **KOTRA ESG STORY**
4. **APPENDIX**



CES 2026 미리보기 : What to see @ CES 2026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CES 2026 개요**
2. **CES 2026 관전 포인트**
3. **통합한국관 소개**
4. **KOTRA의 참가 TIP**

2026 베트남 호치민 국제 의류, 섬유 및 섬유 기술 무역 전시회

전시회명	베트남 호치민 하드웨어, 수동공구 전시회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섬유 및 의류 수출규모 3위 국가이며, 전 세계 상위권 섬유 기계 수입국 중 하나임.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달성했으며 고품질 섬유 재료 생산이 점차 늘어나는 중임. 베트남의 중요 경제 도시인 호치민시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 FDI에서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항구와 국제 공항의 본거지임. 많은 섬유 제조업체들과 인접해있는 호치민시는 업계 의사 결정자들과 컨택할 수 있는 주요 장소임. 세계적인 굴지의 전시회 (중국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전시회, 텍스월드파리 등)를 주관하고 있는 MESSE FRANKFURT에서 주관하는 신규런칭 전시회로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산업의 진출을 KOTRA 지원 한국관 참가를 통해 베트남시장 진출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와 한국 패션소재 상품의 수출 극대화를 제고함.
개최기간	2026.02.25 - 2026.02.27
개최장소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개최규모	15000sqm(m ²)
웹사이트	https://viatt.hk.messefrankfurt.com/hochiminhcity/en.html
산업분야	패션&섬유
전시품목	의류 섬유(패션, 기능성), 홈 텍스타일, 섬유산업 기술, 액세서리 제품군 등
주최자	Messe Frankfurt (H/K) Jimmy Chan / +85-222-389-999 / viatt@hongkong.messefrankfurt.com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5. 11. 30 기준 누계		2025. 01. 01 ~ 11. 3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10,349	94,335.00	412	659.6	3,603.49
싱가포르	4,357	89,515.28	490	4,289.39	8,497.00
일본	5,698	79,266.77	271	1,559.71	3,572.37
대만	3,401	42,266.26	162	951.08	1,668.26
홍콩	3,191	41,259.63	433	1,660.00	3,002.03
중국	6,197	34,727.85	1,149	3,402.19	4,269.02
버진아일랜드(영)	944	24,476.83	31	327.23	915.63
네덜란드	467	14,938.12	21	70.6	180.05
태국	789	15,227.63	36	89.98	966.29
말레이시아	788	14,855.79	39	238.96	2,066.25
미국	1,509	12,267.72	117	460.39	627.72
기타	7,417	66,164.12	534	2,247.57	4,323.11
전체 합계	45,107	528,300.00	3,695	15,956.70	33,691.2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2025. 11. 30 기준 누계		2025. 1. 1 ~ 11. 3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957	325,142.18	1,262	9,172.52	18,519.82
2	부동산 경영	1,310	79,169.08	97	3,137.99	6,490.52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204	42,636.24	8	735.69	1,065.35
4	호텔, 외식서비스	1,078	13,377.71	87	393.53	908.67
5	건설	9,191	12,757.12	418	285.73	1,694.75
6	도소매, 유지보수	1,879	10,734.13	51	216.26	422.17
7	물류 운수	1,313	7,370.51	130	262.42	369.65
8	과학기술, 전문 활동	5,132	6,371.36	1,288	453.37	1,952.48
9	정보통신	3,259	5,220.95	202	40.94	111.37
10	채광	108	4,970.74	1	15	101.65
11	교육, 양성	722	4,800.72	39	92.94	210.27
12	농, 임, 수산	537	3,853.71	5	26.12	46.81
13	예술 오락	88	3,717.48	6	1,075.04	1,253.90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154	3,170.05	4	0.91	2.3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6	1,848.63	2	12.05	169.73
16	행정, 지원 서비스	742	1,270.32	82	29.29	174.84
17	금융, 은행, 보험	166	939.58	8	4.16	36.9
18	기타 서비스	105	938.85	5	2.76	159.96
19	가구내 고용 활동	6	10.64	-	-	-
합계		45,107	528,300.00	3,695	15,956.70	33,691.2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10
수 출	3,713.00	3,546	4,055	4,301(+16.1)
수 입	3,589.00	3,263	3,807	4,096(+18.4)
무역수지	124	280	247	20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1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52,657(+4.8)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96,916(+48.5)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53,358(+11.6)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35,913(+6.7)
신발류	23,895	20,237	22,871	21,909(+5.5)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15,519(+5.4)
철강제품	7,993	3,973	4,594	4,998(+22.3)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15,811(+13.4)
수산물	10,923	8,971	10,040	10,316(+12.6)
원사(Yarn)	4,713	4,355	4,407	3,897(-3.1)
기 타	98,934	103,339	116,569	118,880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430,17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11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136,166(+39.2)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54,751(+23.8)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10,256(+8.8)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13,762(+1.3)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11,384(+6.7)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9,977(-13.3)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10,212(+17.9)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9,781(+21.9)
화학제품	9,144	7,605	7,735	7,283(+3.5)
화학물질	8,747	7,726	8,286	7,271(-4.0)
기 타	136,423	124,419	140,724	138,764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409,60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11
1	미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138,610
2	중국	56,009	57,702	61,207	61,211	63,163
3	한국	21,945	24,293	23,498	25,619	26,099
4	일본	20,128	24,232	23,314	24,608	24,362
5	홍콩	11,996	10,936	9,631	12,423	15,712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12,189
7	독일	7,286	8,968	7,400	7,934	8,589
8	인도	6,259	7,961	8,498	9,064	9,349
9	태국	6,161	7,476	7,192	7,782	7,981
10	영국	5,765	6,065	6,345	7,543	7,711
	기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116,409
	합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430,17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11
1	중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167,504
2	한국	56,155	62,088	52,511	55,925	54,417
3	대만	20,772	22,631	18,421	22,741	29,875
4	일본	22,648	23,373	21,638	21,588	22,381
5	미국	15,270	14,470	13,822	15,102	16,998
6	태국	12,564	14,092	11,797	12,447	11,979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6,489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9,973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10,347
10	인도	6,950	7,086	5,864	5,829	5,406
	기타	64,320	68,386	66,606	105,859	74,238
	합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409,60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11
수 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56,508(+5.8)
수 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28,820(+10.9)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27,688

자료원: KITA

한국의 对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1	2022	2023	2024	2025.11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22,005(+33.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9,342(-9.7)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1,977(-21.5)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2,064(-10.9)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1,987(-7.4)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1,652(+0.6)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980(+0.8)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1,023(+15.9)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580(-5.9)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539(+0.5)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14,359
합 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56,508(+5.8)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对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1	2022	2023	2024	2025.11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4,374(+1.0)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3,122(-7.7)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2,632(+22.1)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4,574(+71.6)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1,859(+20.2)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1,038(-5.9)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531(-13.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627(+18.8)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680(+15.0)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372(-2.1)
기 타	8,161	9,103	8,718	9,543	9,011
합 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28,820(+10.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4년(연간)	%	7.09	5.03	4.4	5.1	2.5	5.7
	2025년 2Q	%	7.96	5.12	4.5	4.4	2.8	5.5
	2025년 3Q	%	8.23	5.04	2.9	5.2	1.2	N/A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8.4	N/A	124.9	133.1	96.6
		2025년 9월	-	13.6	N/A	158.5	141.0	92.0
		2025년 10월	-	10.8	N/A	172.4	N/A	94.6
	구매관리자 지수(PMI)	2024년(연간)	-	51.0	N/A	49.35	49.9	N/A
		2025년 9월	-	50.4	50.4	50.1	49.9	54.6
		2025년 10월	-	54.5	51.2	50.0	N/A	56.6
소비	소비자동향 지수	2024년(연간)	-	N/A	N/A	100.0	N/A	N/A
		2025년 9월	-	N/A	115.0	101.3	N/A	N/A
		2025년 10월	-	N/A	121.2	101.3	N/A	N/A
	소매판매	2024년(연간)	-	9.0	N/A	104.0	179.2	15.3
		2025년 9월	-	11.3	3.7	104.0	189.7	N/A
		2025년 10월	-	7.2	4.3	109.8	N/A	1.3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3.63	N/A	2.4	1.8	108.2
		2025년 9월	%	3.38	2.65	0.7	1.5	N/A
		2025년 10월	%	3.25	2.86	1.2	N/A	N/A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4년(연간)	%	△3	4.61	N/A	3.1	N/A
		2025년 9월	%	15.2	N/A	N/A	N/A	N/A
		2025년 10월	%	15.6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4년(연간)	%	2.24	N/A	2.0	3.2	1.0
		2025년 2Q	%	2.24	N/A	2.0	3.0	0.87
		2025년 3Q	%	2.22	N/A	2.0	3.0	0.73
무역	수출증가율	2024년(연간)	%	14.3	2.28	N/A	5.7	5.5
		2025년 9월	%	24.7	11.41	14.5	12.2	19.0
		2025년 10월	%	17.5	△2.31	25.2	N/A	5.7
	수입증가율	2024년(연간)	%	16.7	5.31	N/A	13.2	5.9
		2025년 9월	%	24.9	7.17	14.8	7.3	17.5
		2025년 10월	%	16.8	△1.15	21.0	N/A	16.3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hanjisoo@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